

# 2026년 5월 11일 야간 브리핑: 반도체가 이끄는 증시 환희, 매크로 지표의 숨은 경고

## KEY MARKET METRIC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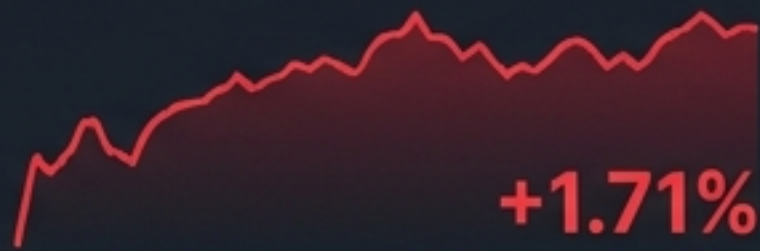
[KOSPI]

**7,822.24**



[NASDAQ]

**26,247.08**



[WTI 원유]

**\$97.58**



[원/달러 환율]

**1,472.75원**



## 오늘 장 핵심 관전 포인트



**KOSPI 7,800 안착:** 외국인 800만 주 매도에도 개인·기관 매수세로 시총 7천조 원 돌파.



**NASDAQ 1.71% 급등:** 테크·반도체 섹터 강세 지속, 한국 IT주 강력한 매수 신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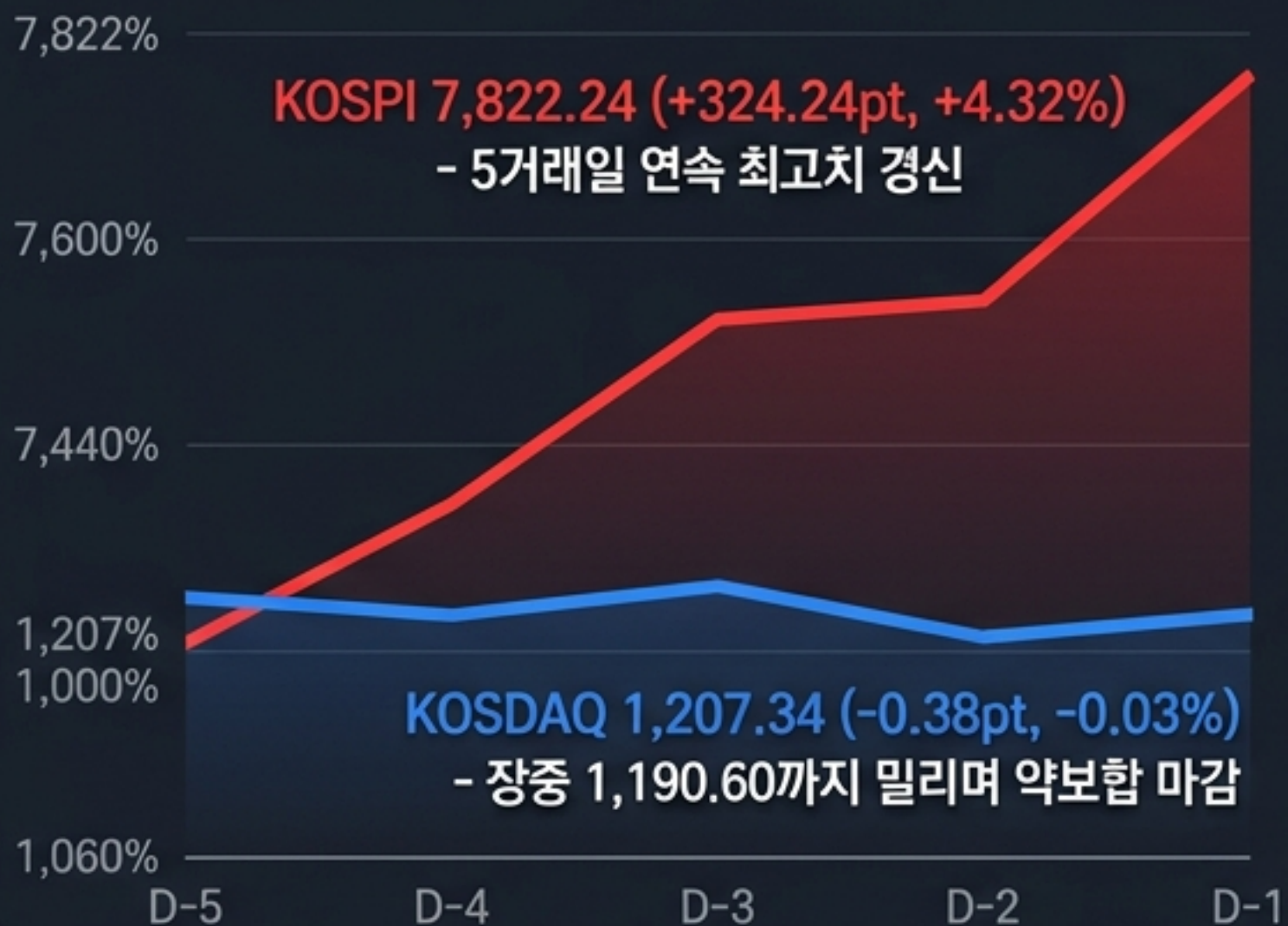


**환율 1,472원대 진입:**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, 수출기업 환차익 확대 기대.



**인플레이션 리스크:** 유가 \$97 돌파. 이번 주 CPI 결과에 따른 금리 변동성 대비(금·에너지 헷지 필요).

## 지수 디커플링 현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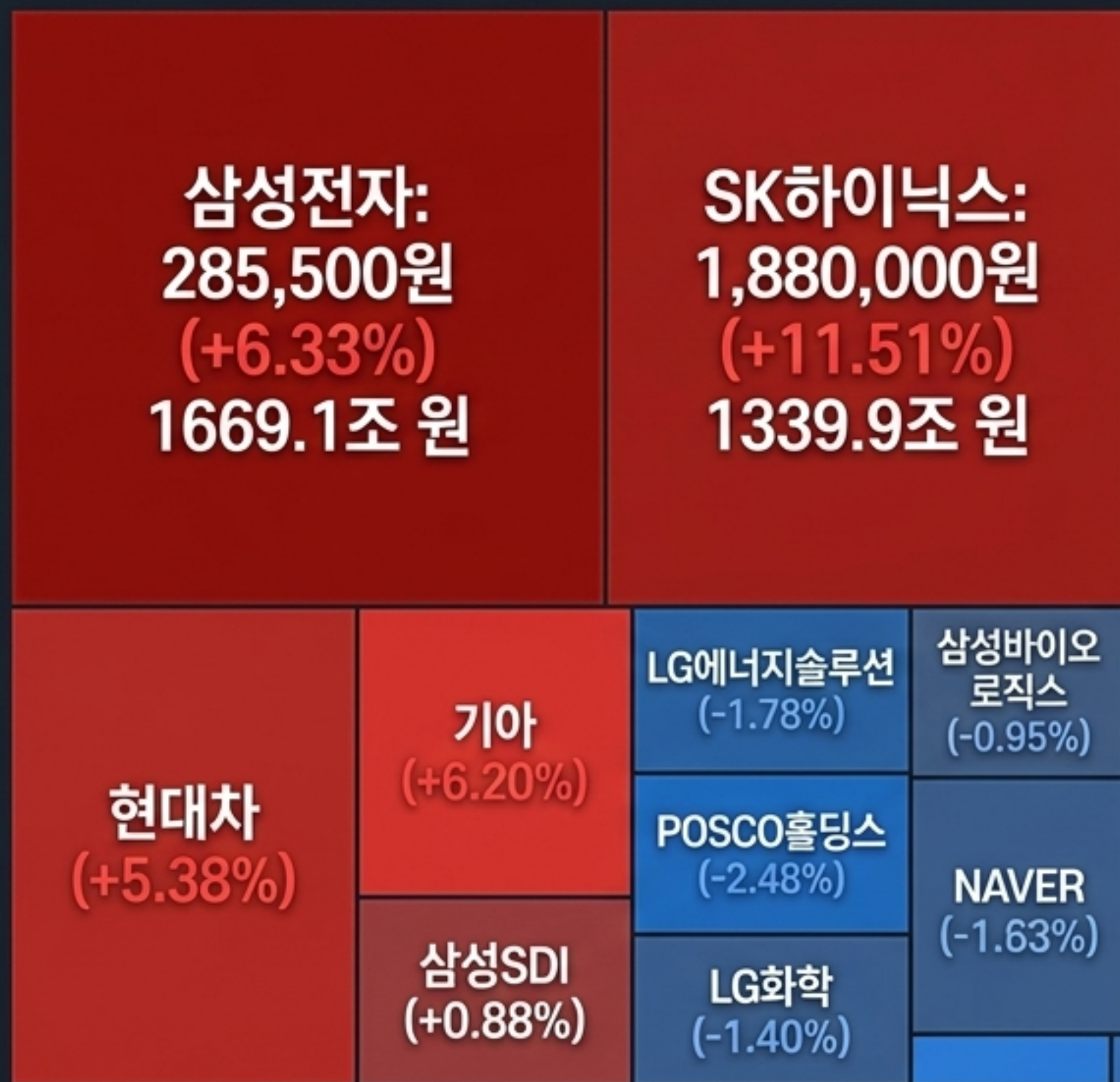
대형주 중심의 폭등 vs  
중소형주 소외 현상의 극대화

## 수급 구조 변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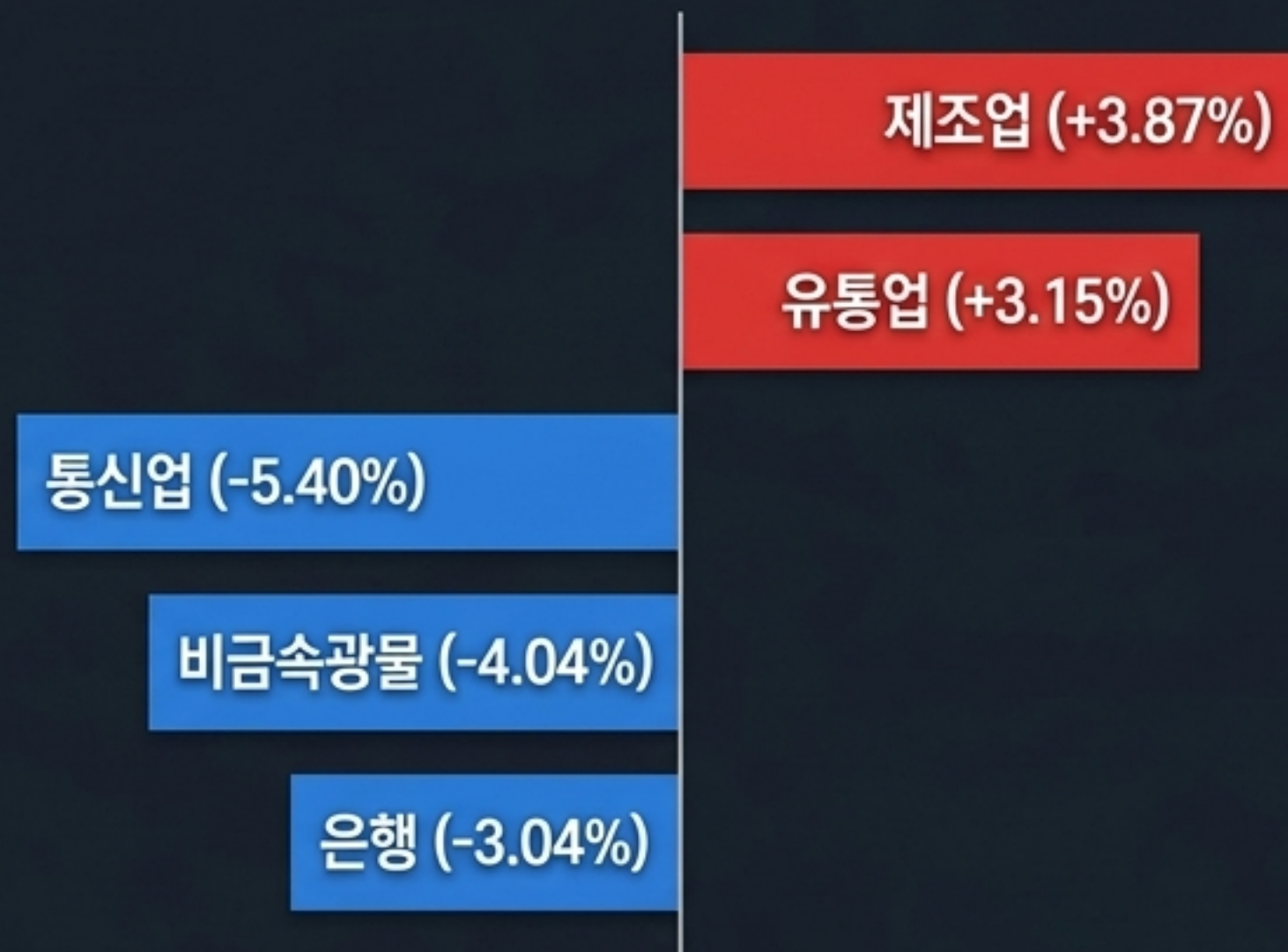


외국인의 대규모 이탈을 개인투자자가  
전면에서 받아내며 8,000스피 정조준

## 시가총액 상위 종목 쏠림 현상



## 주요 섹터별 등락률



반도체(제조업) 독주 체제. 기술주 이외의 섹터는 철저히 소외되는 양극화 장세 심화.

# 미국 증시: 기술주 랠리 이면의 고평가 경고음



**NASDAQ 26,247.08 (+1.71%)**  
**S&P 500 7,398.93 (+0.84%)**

- **동력:** 루멘텀(Lumentum) 개장 전 +5% 상승 및 나스닥 100 편입. 테크/반도체 주도 상승 흐름.
- **연결 고리:** 미국 시장 내 '한국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' 출시 임박.




**DOW JONES 49,609.16 (+0.02%)**

- **섹터 흐름:** 부동산(+7.42%) 급등 제외, 생활필수품(-0.53%) 및 유틸리티(-1.70%) 등 방어주 중심의 정체 흐름 뚜렷.

**“현재 증시 흐름은 1999년 닷컴버블 마지막 국면과 유사하다.”**

— 마이클 버리 ('빅쇼트' 실제 모델)

기술·반도체 섹터의 폭발적 랠리와 극명한 변동성 괴리가 시장 구조의 불안정성을 암시함.



유럽 (STOXX 50): 5,520.00 (+0.62%)  
-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및 방산주 강세

중국 (선진성분): 10,890.00 (+0.62%)  
-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반영

일본 (닛케이 225): 225.00 (+0.15%)  
- 엔화 약세 기반 수출주 강세

호주 (ASX 200): 8,555.00 (+0.52%)  
- 자원주 중심 견조한 상승

##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시한 글로벌 랠리

트럼프의 '이란 휴전안 거부' 등 중동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자금은 유럽의 방산주와 아시아의 반도체로 집중되며 'Risk-on(위험자산 선호)' 심리를 강력하게 유지 중.

# FICC 매크로 시그널: 환희 이면의 강력한 경고음

## WTI 원유



**\$97.58 (+\$2.62)**

- 트럼프의 이란 종전안 일축으로 급등.
- KDI 경고: 현 고유가 지속 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%대 위협.

## 국채 10년물



**4.386% (+5bp)**

- FOMC 매파적 기초 재확인에 따른 금리 상승.

## 금 (XAU)



**\$98 (+\$18)**

- 국내 1돈 96만 원 돌파.
-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지속.

## 원/달러 환율



**1,472.75원 (-5.30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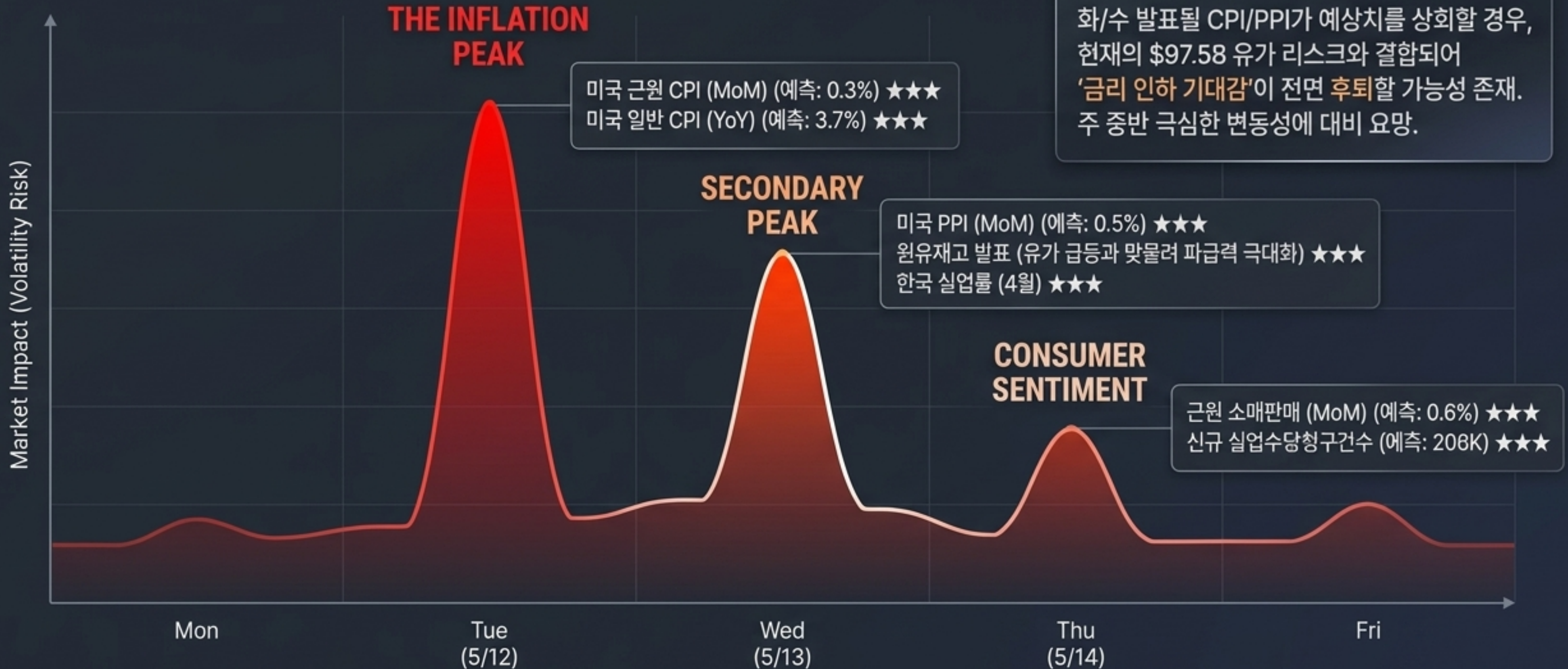
- 달러인덱스 157.1240 (-0.32).
- 유로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, 수출주 환차익 모멘텀 확보.

모순적 유동성 장세: 안전자산인 금(\$98)이 급등하는 동시에, 초위험자산인 비트코인(\$67,350, +\$1,240)도 동반 상승하는 이례적 과잉 유동성 상

# 주간 리스크 레이더: 물가 지표에 집중된 변동성

## 전략적 시사점

화/수 발표될 CPI/P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, 현재의 \$97.58 유가 리스크와 결합되어 '금리 인하 기대감'이 전면 후퇴할 가능성 존재. 주 중반 극심한 변동성에 대비 요망.



# 최종 요약 및 전략적 스탠스

## 국내 증시

### KOSPI 7,800 안착 및 반도체 쏠림 심화

개인투자자의 방어력으로 7천조 원 시총 달성.  
단, **삼성전자(+6.33%)**와 **SK하이닉스(+11.51%)** 외 비금속/통신 등 타 섹터의 소외 현상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 필요.

## 미국 증시

### 나스닥 주도의 기술주 랠리 vs 닷컴버블 경고

루멘텀 등 테크 섹터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나,  
마이클 버리의 고평가 경고와 다우 지수의 정체(+0.02%)를 감안할 때 추격 매수보다 비중 조절 타당.

## 환율 및 원자재

### 원화 강세 수혜주 주목 및 인플레이션 헷지

환율 하락(1,472원대)에 따른 수출 대형주 모멘텀 유지.  
동시에 **\$97.58 유가 급등**과 **금값 상승**에 대비해 포트폴리오 내 **에너지/귀금속 비중** 일부 편입 권장.

## 주간 대응 플랜

### CPI / PPI 결과 확인 전까지 포지션 중립 유지

유가 리스크로 인해 5/12(화) CPI 데이터의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. 서프라이즈 발생 시 채권 금리 추가 상승(현재 4.386%)에 따른 기술주 조정 리스크에 대비.